Propylene, 3주연속 강세 지속

FOB Korea 450-460달러로 20달러 상승 … 유럽은 55유로 폭락

Propylene 시세는 7월5일 FOB Korea 톤당 450-460달러로 또 다시 20달러 상승했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AN 수요가 강세를 지속하고 나프타 크래커의 가동률 조정으로 수급타이트가 지속돼 톤당 500달러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PP 생산기업들은 나프타 크래커의 가동률 조정으로 프로필렌 수급타이트가 계속되자 2개 Cargo 구매에 나섰으며, 타이완에서는 7월말 또는 8월초 구매가격으로 CFR Taiwan/Korea 톤당 460-47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프로필렌 공급기업들도 판매가격을 FOB Korea 톤당 460달러로 인상했으며, 7월말 거래가격은 FOB Korea 450-460달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타이완의 CPC가 No.5 에틸렌 크래커의 가동을 2-3일 연기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지아의 Titan Petrochemical이 파워 이상으로 6월29일 가동을 중단했던 석유화학 컴플렉스를 재가동해 프로필렌 수급에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 Titan은 석유화학 컴플렉스 가동중단과 함께 PP 플랜트 가동도 중단했었다.

동남아의 프로필렌 가격은 CFR SE Asia 톤당 480-490달러로 CFR Taiwan 480-490달러와 같았으며, CFR Chian 470-490달러보다는 높았다. FOB Japan은 440-450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의 프로필렌 시세는 Polymer 그레이드가 CIF NWE 톤당 530-540유로로, Chemical 그레이드는 520-530유로로 55유로 폭락했다.

유로화의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유럽의 프로필렌 가격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산 프로필렌 3000톤이 CIF NWE 톤당 530달러에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 것도 프로필렌 가격폭락을 유도했다. 미국산 프로필렌은 US Gulf 파운드당 21-22센트로 CIF NWE 525-530달러를 보이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10>